

# 광주프린지페스티벌 동네 찾아간다

유스퀘어 광장·송정역시장 등서  
10월 2일까지 5개구 분산 개최  
'거리예술축제'는 문화전당권역서  
7월 3일 DJ센터 광장서 개막

푸른길, 유스퀘어 광장, 1913 송정역시장, 비엔날레 광장, 쌍암공원, 양산호수공원...  
위에 열거한 장소는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지는 우리 동네 문화공간들이다. 동네 주민뿐 아니라 광주 시민들이라면 한번쯤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리는 광장과 공원, 시장 등을 찾았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지난해부터 지속된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모임 수 없지만, 동네 문화공간은 여전히 낭만과 꿈, 젊음이 숨 쉬는 명소다. 문화예술의 에너지가 응결된, 지역의 문화가 교류되고 융합하는 의미있는 공간이다.

매년 거리에서 관객과 함께 호흡하는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이 올해는 동네로 찾아간다. 일종의 '분산형 페스티벌'로, 오는 7월 3일부터 10월 2일까지 5개구에서 분산형(1회차~9회차)으로 열린다.

아울러 '거리예술축제'(광장형)는 오는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종전처럼 '5·18민주광장'을 중심으로 아시아문화전당 권역 내에서 진행된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21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이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희망의 장을 열기 위해 동네에서 분산 개최된다. 일상의 거리를 예술적 만남이 있는 의미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켜보자는 취지이며, 나아가 지역 예술단체 작품을 우선 배정해 지역 예술가들이 설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하자는 기획 의도도 담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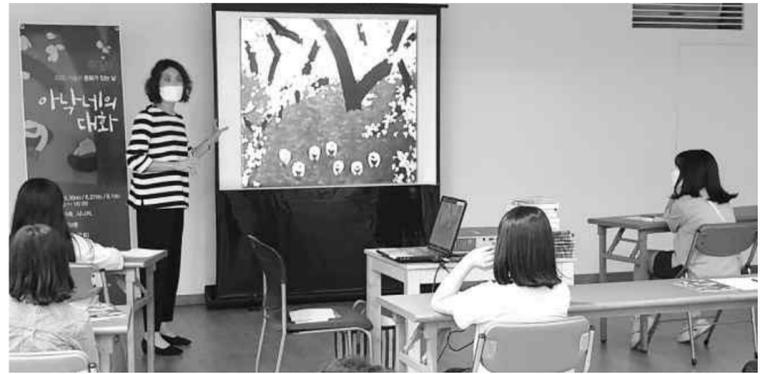
이번 프린지페스티벌 예술감독을 맡은 고진영 씨는 "올해는 '희망찬 내일을 펼쳐라'라는 슬로건으로 다양한 단체와 협력해 광주 곳곳에서 시민들을 만난다"며 "코로나로 지친 이들을 위로하고 문화예술의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광주형 프린지페스티벌'을 지향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장소는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장'(7월 3일), '광주 동구&남구 푸른길'(7월 17일), '유스퀘어 광장'(8월 14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8월 21일), '유안근린공원'(8월 28일), '광주비엔날레 광장'(9월 4일), '쌍암공원'(9월 11일), '광주 송정역&1913송정역시장', '양산호수공원' 등이다. 마지막 무대는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5·18민주광장'에서 거리축제 형태로 열린다.

7월 3일 오후 4시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장에서 개막하는 올해 축제는 라디오 공개방송으로 막을 연다. 광주 MBC '박해리의 정오의 희망곡' 라디오 공개 방송은 감성 싱어송라이터 '카더가든', 바이올린과 댄스를 결합한 유튜브 크리에이터인 바이올리니스트 '제니윤'의 무대와 지역 예술단체인 마인드바디엔소울, 여울밴드, NS재즈밴드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사전 공연도 마련돼 있다. 니즈크루, 박수용의 재즈밴드, 춘디클럽 등 지역예술단체의 신명나는 무대가 시민들을 기다린다. 아울러 개막공연과 함께 플라마켓, 공예체험도 진행되며 무엇보다 다양한 환경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어 기후 문제와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도 역할을 했다. 공병을 가져오면 주방세제 리필해주기(시민생활환경회의), 인간동력 에너지 체험부스(광주에코바이크), 킬리푸드 여행 보드게임(기후행동 비건네트워크), 종이팩 분리배출(광주전남녹색소비자연대) 등 다채로운 체험을 할 수 있다. 오전 시 개막 무대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은 김대중컨벤션센터 건물내부(7번 게이트 앞)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062-670-7984.

지역 미술관들이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펼친다. 지난해 국운미술관 행사 모습.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지역 미술관들이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펼친다. 지난해 국운미술관 행사 모습.

## 미술관으로 들어 온 친환경·문화자원

국운·은암·대담 미술관 '문화가 있는 날' 행사 다채

지역 미술관들이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사립미술관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지역 고유 특성을 활용한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문화예술 향유를 통해 삶의 여유와 치유의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

◇국운미술관  
매년 소장품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국운미술관(관장 운영월)은 올해 '국운藝맛zip (feat.현대미술)'을 6-9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 4시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특별히 미술을 전공하지 않은 지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게 특징이다. 코로나로 학교 업무에 지친 교사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고 예술적 소양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기획됐다.

'국운藝맛zip'은 미술관 소장품인 국중호 작가의 작품에 담긴 미술사적 의미를 통해 현대미술을 이해하는 기획으로 강의와 함께 체험이 어우러진 융합프로그램이다. 30일 열리는 '현대미술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시작으로 '마티에르 기법 이해', '영포르멜:서정적 추상에 대한 이해', '한국 개화기 이후 현대미술 전개 이해'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강의를 이뤄진다.

참여자들은 국 작가의 작품 세계와 관련한 동영상 시청 후 강의에서 만나는 현대미술의 기법을 바탕으로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나만의 작품을 제작·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에 신규콘텐츠로 제작된 동영상은 1970년부터 2020년까지 국 작가의 작품을 연대별로 소개하고 작품 및 소재의 배경이 되는 장소를 직접 방문해 촬영한 에피소드로 구성돼 있다. 다음 프로그램은 7월28일, 8월25일, 9월29일 열릴 예정이다. 문의 062-232-7335.

◇은암미술관  
다채로운 기획전을 열고 있는 은암미술관(관장 채종기)은 친환경적인 삶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7월3일 첫 행사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열리는 '미술관에서, 제로웨이스트!'는 친환경적(eco-friendly)인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미술관에 모여 '친환경·제로웨이스트'의 개념을 쉽게 이해하고 친근하게 느끼기 위해 기획됐다. 제로웨이스트



인양목으로 만든 물병 주머니.

에서 나오는 양말 원단의 자투리로, 부드럽고 신축성이 좋으며 색상도 다양하다. 강의에서는 양말목으로 여름맞이 물병 주머니와 컵 받침을 만들어 본다.

이외 '친환경 삼파바 만들기'(8월28일), '몰티슈 대신, 소창수건'(9월27일) '자연에서 온 수세미'(10월30일) 등의 프로그램이 열린다. 무료. 문의 062-226-6677.

◇대담미술관  
담양 대담미술관(관장 정희남)은 미술관이 자리한 담양 향교리 지역의 특산물과 문화자원을 활용한 '동네방네 미술관-한 켠 갤러리'를 오는 10월까지 총 5회 운영한다.

7월2일(오후 2시-5시) 열리는 행사는 작품 설명 및 비하인드 스토리 등을 통해 심도 있는 작품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는 '큐레이터와 함께하는 기획전시 관람'으로 시작한다.

이외 '동네방네 미술관-한 켠 갤러리 소개'에서는 향교리 마을을 걸으며 대담미술관의 지역문화 활성화 프로젝트인 '동네방네 미술관'을 소개하고 '한 켠 갤러리'를 둘러보는 시간을 갖는다. 세 번째 순서 '대나무 부채 만들기 체험'에서는 담양 특산물 죽세공품 중 하나인 대나무 부채에 그림을 그려 나만의 부채를 만든다. 체험 후에는 참가자 각자가 부채에 담긴 이야기를 발표하며 자기표현을 통해 자신감과 공감능력을 이끌어내는 시간을 갖는다. 무료. 문의 061-381-0082.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올해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은 동네를 찾아가는 형태로 진행된다. 지난해 열린 축제 한 장면.

## 전남대 도서관 7월 5일까지 '한 책 도서 교환전'

'올해의 한 책'으로 선정된 책과 동반도서 4권을 소장도서와 맞교환하는 도서 교환전이 진행된다.

전남대 도서관은 오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도서관 정보마루 서문에서 '한 책 도서 교환전'을 갖는다. 이번 교환전은 재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독서경험 공유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기획됐으며 소장도서 1권을 올해의 한 책 또는 동반도서와 맞교환하는 형식으로 펼쳐진다.

단 2012년 이전 출판된 도서를 비롯해, 만화, 수험서, 학습서, 잡지 등은 제외된다.

도서관은 올해의 한 책으로 선정된 '관계에도 연습이 필요하다'(박삼미)와 '꿈꾸는 사과'(모지현),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우종영), '서른 세 번의 만남, 백석과 동주'(김응교),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정재찬) 등 동반도서 4종을 준비했다. 문의 062-530-3533.

관계에도 연습이 필요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ESS시공전문기업

##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하시고 전하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